

Reconciling Before Worship / 예배 전에 화해하기

(Matthew 5:23–30 explained through Leviticus 1:1–6:7 and Isaiah 43:21–44:23)

English

1. The Torah Background: Sacrifice Requires Inner Integrity

In Leviticus 1–6, the sacrificial system is introduced. Offerings such as the burnt offering (olah), grain offering (minchah), peace offering (shelamim), sin offering (chatat), and guilt offering (asham) provide ways for Israel to approach God.

Yet these offerings were not merely ritual acts. They represented repentance, reconciliation, and restored relationship.

Leviticus 6:1–7 especially teaches that if someone sins against another person—through theft, deception, or dishonesty—they must **first restore what was wrongfully taken before bringing the guilt offering.**

Thus the Torah establishes a principle: **right relationship with others is required before approaching God through sacrifice.**

2. Matthew 5:23–24: Reconciliation Before the Altar

When Yehoshua teaches,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remember that your brother has something against you, leave your gift there and first be reconciled,” he is not creating a new idea.

He is applying the principle already found in Leviticus.

한국어

1. 토라의 배경: 제사는 내적 정직을 요구한다

레위기 1–6 장에서 다섯가지 구분된 제사 제도가 처음으로 제시된다. 번제(올라), 소제(민하), 화목제(셤라뎀), 속죄제(하타트), 속건제(아삼)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구체적인 예법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는 단순한 의식 행위가 아니고, 회개, 화해, 그리고 관계의 회복을 의미했다.

특히 레위기 6:1–7 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도둑질이나 속임, 불의한 행동을 통해—**먼저 잘못 취한 것을 돌려준 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토라는 하나의 원칙을 세운다.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가 여호와께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필요하다.**

2. 마태복음 5:23–24: 제단에 가기 전에 화해하라

예호수아께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가 너에게 원망할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화목하라”고 가르치실 때, 그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다.

그는 이미 레위기에 존재하는 원칙을 적용하시고 계신 것이다.

Just as Leviticus required restitution before a guilt offering, Yehoshua teaches that reconciliation with others must come before worship.

Worship without reconciliation contradicts the purpose of sacrifice.

레위기가 속건제를 드리기 전에 배상을 요구한 것처럼, 예호수아께서도 예배 전에 사람들과의 화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화해 없는 예배는 제사의 목적과 모순된다.

3. Isaiah's Prophetic Warning

Isaiah 43–44 explains that Israel was created to glorify God: “This people I formed for myself that they might declare my praise” (Isaiah 43:21).

Yet the prophet rebukes them because they continued rituals without sincere devotion.

God says that their sins have burdened Him, but He promises forgiveness: “I blot out your transgressions for my own sake.”

Isaiah therefore emphasizes that God desires repentance and transformation, not empty ritual.

3. 이사야의 예언적 경고

이사야 43–44 장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이사야 43:21).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이 진실한 마음의 헌신 없이 외적인 의식만 계속하는 것을 책망한다.

여호와는 그들의 죄가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동시에 용서를 약속하신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몸만 따르는 공허한 의식이 아니라 내면의 회개와 변화된 삶을 원하신다는 점을 강조한다.

4. Matthew 5:25–26: Resolve Conflict Quickly

Yehoshua continues by urging people to settle disputes quickly before judgment occurs.

This echoes the Torah's concern for justice and restitution.

If wrongdoing remains unresolved, it leads to greater consequences.

4. 마태복음 5:25–26: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라

예호수아께서 이어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라고 권면하신다.

이것은 정의와 배상을 강조하는 토라의 정신과 연결된다.

잘못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로 인하여 더 큰 손실을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Matthew 5:27–30: Sin Begins in the Heart

Yehoshua then deepens the Torah’s teaching by focusing on the inner source of sin.

The commandments against adultery are not only about outward acts but also about the desires of the heart.

Just as Leviticus regulates outward purity, Yehoshua addresses inward purity.

Radical language about removing the eye or hand emphasizes the seriousness of removing sources of sin.

5. 마태복음 5:27–30: 죄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예호수아께서는 이어서 죄의 내적인 뿌리에 초점을 맞추어 토라의 가르침을 더욱 명료히 설명하십니다.

간음에 대한 계명은 단지 외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과도 관련된다.

레위기가 외적인 정결을 다루는 것처럼, 예호수아께서는 내적인 정결을 다루신다.

눈이나 손을 제거하라는 강한 표현은 말과 행동으로 범한 죄의 근원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Summary 요약

Matthew 5:23–30 reflects the Torah’s sacrificial theology and the prophetic call to sincere repentance.

Leviticus teaches that wrongdoing against others must be repaired before bringing an offering.

Isaiah warns that ritual without a transformed heart is meaningless.

Yehoshua brings these teachings together by emphasizing reconciliation, inner purity, and genuine devotion to God.

마태복음 5:23–30 은 토라의 제사에 있어서 신성한 원리와 선지자들의 진실한 회개 요구를 반영한다.

레위기는 다른 사람에게 행한 잘못을 먼저 바로잡은 후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가르친다.

이사야는 변화된 마음 없이 드리는 의식이 무의미하다고 경고한다.

예호수아께서는 화해, 내적 정결, 그리고 여호와께 대한 진실한 헌신을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가르침을 하나로 통합하십니다.